

---

## I. 관종별 도서관 현황

---

1. 공공도서관 현황 / 10
2. 대학도서관 현황 / 13
3. 학교도서관 현황 / 16
4. 전문도서관 현황 / 28
5. 특수도서관 현황 / 29

1

## 공공도서관 현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문화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정보도서관 등 다양한 명칭 하에 운영체계 또한 교육청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평생교육 수요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대응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정보·문화공간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 사서직 전문인력 충원,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을 탈피하여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의 전환, 도서관협력시스템 구축 등의 현안 과제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정책이관. 2004. 11),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 등 공공도서관 지원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도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고 개인정보보호의 대두,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실시 등 시대적 변화를 맞이한 한 해였다.

### 1) 시 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487개관으로 전년도에 비해 16개관이 늘어났다. 국민 전체인구로 볼 때 약 10만명당 1개관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선진국(미국 3만명, 일본 4만8천명, 영국 1만2천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수 및 1관당 봉사대상인구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서관수	420	437	462	471	487
1관당봉사대상인구	114	110	104	102	99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가 전국 평균치의 두배가 넘는 23만명 수준으로 상당히 열악하며 제주도와 강원도가 3만명선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속별로 보면 사립도서관 14개관을 제외하고 공립 공공도서관 473개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서관확충 정책으로 향후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소속별 공공도서관수

소속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립	계
도서관수	223	250	14	487

### 2) 자 료

전국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2004년말 현재 38,423,789책으로 1관당 책수는 78,899책이다. 국민 1인당 장서수는 0.79책으로 도서관 1관당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울산, 인천, 서울이 평균에 밀도는 상황이며 강원도와 제주도

가 월등하다. 비도서자료는 2,247,764점으로 1관당 4,616점이고, 연간 총 증가책수는 4,766,129책으로 1관당 9,787책이 증가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자료현황

지역별	도서관수	1관당 봉사 대상인구	1관당 책수	1인당 책수	1관당 증가책수
서울	44	231,208	122,491	0.53	9,157
부산	24	152,764	98,389	0.64	10,411
대구	13	194,209	136,104	0.70	10,785
인천	11	234,438	130,477	0.56	20,777
광주	12	116,764	108,163	0.93	10,560
대전	15	96,231	93,918	0.98	8,466
울산	5	216,291	98,673	0.46	10,786
경기	70	149,470	104,512	0.70	20,018
강원	39	39,010	62,098	1.59	5,799
충북	25	59,558	57,084	0.96	8,300
충남	38	51,405	53,885	1.05	7,303
전북	36	52,965	50,144	0.95	4,884
전남	44	45,141	60,899	1.35	7,130
경북	51	52,861	58,217	1.10	6,664
경남	42	74,853	61,520	0.82	8,731
제주	18	30,853	56,549	1.83	7,123
계/평균	487	99,761명	78,899책	0.79책	9,787책

### 3) 인력 및 재정

도서관 1관당 평균 직원수는 11.6명, 사서 직원 수는 1관당 4.5명에 불과하고, 사서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22,296명으로 국제도서관 협회연맹(IFLA) 권장기준(인구 2,500명당 상근직원 1인)의 11.2%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은 1관당 710,841,587원으로 2003년 대비 5.5%가 줄었다. 이 중 인건비 48%, 자료구입비 12%, 기타운영비 40%로 나타났으며, 1관당 자료구입비는 9천1백만원이다.

### 4) 사서직 관장 보임현황

2004년말 현재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관장이 공석이거나 분관으로서 따로이 관장을 두지 않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총 451개관 중 사서직 관장이 210개관으로 46.5%에 그치고 있다. 1991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1997년부터는 공립 공공도서관장이 사서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2000년말 53.4%까지 증가하였으나 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사서직 관장 비율

구분	전 체			교육청 소속			지방자치단체 소속		
	계	사서직	행정직	계	사서직	행정직	계	사서직	행정직
인원(명)	451	210	241	223	172	51	228	38	190
비율(%)		46.5	53.5		77.2	22.8		16.6	83.4

### 5)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문화관광부의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4.7%(4명중 1명)로 2002년(17.3%)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럽 14개국의 평균치(29.8%)보다 여전히 낮다.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평균 50.2%로 중학생(53.4%), 초등학생(51.6%), 고등학생(45.7%)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률 변화추이(성인)

연 도	1994	1995	1999	2002	2004
이용률(%)	13.6	13.2	19.9	17.3	24.7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은 도서열람 및 대출(52.6%) > 시험공부 등을 위한 일반열람실 이용(25.5%) > 자료조사 및 연구(15.8%) > 각종 문화행사 참가(4.9%) 순으로, 2002년 조사결과

에 비해 자료이용 비율이 10.3% 증가하였고, 일반열람실 이용이 4.3% 감소하였다.

## 6) 공공도서관 주요 동향

### (1) 도서관 보상금제도 실시

2004년 7월 1일부터 2003년 개정된 저작권법(제28조 5항)에 의해 도서관에서 원문DB를 열람하기 위해 전송하거나 출력할 경우,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국회 원문DB나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과금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인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도서관과 저작권편 참조).

### (2)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대두

200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인좌석발급기에 지문과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요구로 시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발단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인좌석발급기나 CCTV 등의 설치 도서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권조사 권고문을 국립중앙도서관과 21개 공공도서관에 송부(2005. 3)하였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정(무인좌석 발급기, 도서대출회원증), CCTV 설치 관련 불필요한 장비회수 및 자체

규정 마련,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모니터링 중지,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등이다. 이를 계기로 공공도서관에도 개인정보보호나 인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각 공공도서관 별로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등을 통한 이용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3)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대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월2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고 2005년 7월부터 전면실시를 앞두고 공공도서관별로 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고심하였다.

주5일 근무 시대의 도서관은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요구의 증대, 문화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역할 증대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능력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실현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토·일요일을 전면 개관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부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주5일제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속에 도서관계에서는 토·일요일 중 하루를 휴관하는 휴관제도 도입으로 평일 업무공백 최소화, 도서관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를 통한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사서직 증원, 대체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인 방안 강구에 나섰다.

## 2

## 대학도서관 현황

대학도서관의 목표는 대학의 교육적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며 대학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 정보원으로 연구목적 성취하도록 돕는데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로서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술자료와 디지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링크, 다운로드, 정리, 보존, 축적과 연구 및 학습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학술자료의 제공,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자료와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등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4년 대학도서관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활동들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서관간 협력체계 강화

문헌복사 서비스 위주의 도서관간 협동업무가 도서의 상호대차, 서울대를 중심으로 150개 대학의 학위논문 공동 이용과 국제간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릉대, 강원대, 경동대, 관동대, 삼척대, 상지대, 연세대(원주), 춘천교대, 한라대, 한림대 등 강원지역 10개 대학은 도서관간 상호대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자료대출은 이용자가 직접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천안대, 호서대 등 천안 안서지역 5개 대학은 대학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관 시설과 소장자료 공동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이들 대학 4만 7천여 명의 학생이 2백여 만권의 장서

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로 구성된 학술정보교류협의회 소속 도서관간에는 단행본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도서배송방법은 이용자가 해당 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경희대와 한국외국어대는 양교 간에 도서관출입, 복사 및 자료대출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였고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신촌지역의 3개 대학간의 상호대차도 실시되고 있다.

경기대, 경희대(수원), 명지대, 수원대, 아주대, 한양대(안산) 등 경기지역 6개 대학은 연속간행물 공동이용시스템을 가동하여 3천여 종의 학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강원대는 중국 南開大 및 人民大와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술정보교환, 학술자료교환 및 인적자원교류 등을 도모하였고 11월 1일에는 중국의 遼寧大, 南開大, 人民大, 베트남의 하노이대,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대와 동아시아대학 도서관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북대는 중국사회과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도서관 상호이용을 도모하였다.

### 2) 도서관 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동향

저작권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도서관에서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 시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즈음하여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도서관계가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

학교도서관협의회 및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연합하여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도서관 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성명서와 행동지침을 발표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근본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①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의 선행 ② 현재의 명칭을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③ 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공 ④ 관계 당국의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 시스템 개발 및 각 도서관에 무상 제공 ⑤ 대학 내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및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유일한 ‘저작권산권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 단체와의 편향된 약정체결 정정 ⑦ 팩시밀리(Fax)를 이용한 자료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⑧ 현실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⑨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 마련 및 합리적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도 시행 유보 등의 선결 조건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회원들의 행동지침에는 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약정 체결 유보 ② 원문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호대차서비스 강화 ③ 학위논문의 원문 이용은 서울대 등 150개 대학이 참여하는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활용 ④ 국내 학술지 원문서비스(KISS) 계약 유보 ⑤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정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견

서를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대학교서관의 현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세부안 작성 때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을 받았다.

### 3) 모바일 서비스 실시

전자책 업체인 북토피아가 추진해 온 무선랜(WDL) 전자책 서비스 사업이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WDL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및 서비스 개시 이후 가입한 강원대, 계명대, 부산대, 영남대, 전주대 등 50개 대학교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PDA 등으로 모바일 도서관에 접속하여 북토피아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책 대출은 물론 열람과 반납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랜 전자책 서비스는 KAIST가 주관한 국가과학기술 전자도서관(NDSL) 사업과 KTF의 캠퍼스 모바일 사업을 연계한 세계 최초의 무선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다.

### 4) 도서관 이용교육에 e-Learning 시스템 활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방문,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등을 통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도서관이용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대학은 경희대(수원)였다. 경희대는 2003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도서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4년에는 남서울대, 인천대, 숙명여대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서관 정보이용교육: Cyber 강좌」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숙명여대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교양필수과목인 “글쓰기와 읽기”의 수강생은 사이버상에서 강의를 듣고 도서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 도서관 안내부터 목록검색, 전자정보원 활용방법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업무와 제공서비스를 정리하였다.
- 이미지, 동영상, 플래시 등으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흥미를 높였다.
- 수강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전자우편 및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였다.
- 모든 관리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로 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기본적인 학기관리, 수강생정보, 계열관리, 강의 진도체크, 시험관리, 시험문항관리, 인증처리 및 각종 통계 등의 구현이 웹상에서 가능하다.

## 5) 열람좌석 배정 전자시스템 도입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이 한정된 열람좌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2004년에도 경성대, 동아대, 순천향대, 신라대, 한국의국어대, 한성대 등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하루 종일 자리를 잡아 놓는 ‘암체족’, 늦게 오는 친구를 위해 자리를 잡아주는 ‘배짱족’, 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 등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 6) 직원 해외연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훈련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계명대, 동국대, 숭실대가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숭실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업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공모하였는데 도서관에서는 4명의 직원이 “선진 외국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북미지역 3개교(워싱턴대, 시애틀 퍼시픽대, 빅토리아대)와 일본 동경대를 연수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관심사는 사서와 교수가 서

로 협력하여 해당 주제 분야의 정보원을 개발하고 교과과정 중심의 도서관 이용교육과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리에중(Liaison) 프로그램 즉, 교수-사서 담당 프로그램이었다.

## 7) 그 외의 활동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실시한 ‘제5차 대학도서관 신규서비스 제안’ 공모에서 김비연(고려대)이 최우수상(디지털 도서관과 메타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MODS 적용 사례), 정재영(서강대)이 우수상(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사서커뮤니티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수상하였고, 장성운(강원대), 현영애(이화여대), 황남구(포항공대) 등 3명은 한국도서관협회 제55차 정기총회에서 ‘2004 한국도서관상(개인)’을 수상하였다. 한편 한성대는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비주거부문 본상(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관동대, 전북대, 청주대, 충북대는 휴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주민까지 회원증을 발급하는 도서관회원제를 도입하여, 우석대는 전북 완주군 내 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사서 1개교 방문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도서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경성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동의대, 영남대 등은 멀티미디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설 보완을 하였으며, 특히 경성대는 영상과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각종 디지털 활용공간인 CT(Culture Technology) 스퀘어를 확보하였다.

성공회대는 중앙도서관의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성균관대는 ‘미래의 학술정보관 가상체험수기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행사를 하였다.

경북대는 장서200만권 확보 기념행사 및 고서 특별전시회를, 계명대는 개교50주년을 맞이하여 50종의 고성경전시회를, 부산대는 재직교수 연구논문 및 저작물 전시회를, 한밭대

는 ‘도서관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라는 북 헌팅 행사를 개최하였고, 충남대는 도서관음악회 개최 및 구전문학 체험 기회와 장을 마련하였다.

경상대는 김포한(75. 경남 산청군 신동면) 씨로부터 고서 및 고문서 1,500여 점을 수증 받았다. 이 자료에는 물천선생문집 및 성재허전(1797~1886), 한주 이진상(1818~1886), 만성 박치복(1824~1894), 면우 광중석(1846~1894) 등이 주고받은 편지 1,000여 점, 만사 238 점, 시문 121점, 제문 99점, 기문 8점, 혼서와

상량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이상과 같은 대학도서관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또한 대학당국 및 정부의 육성책이 마련되어야만 바람직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를 관리하는 대학도서관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 정립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바이다.

3

## 학교도서관 현황

2004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노동부의 직장 체험 프로그램 희망 근로자 선발로 야기된 사서(교사)의 위상 문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삭감, 그리고 김제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인력 배치 문제 등이었다.

각 영역별로 2004년에 발생한 주요 쟁점 및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도서관 일반 현황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 특수학교 포함) 수는 각각 5,541·2,888·2,221개교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도서관(도서실 포함)이 설치된 비율은 초

등학교 86.2%, 중학교 91.8%, 고등학교 99.9%이다. 또한 학교 급별로 학교도서관의 평균 장서수를 산출해 보면 초등학교 5,169권, 중학교 4,557권, 고등학교 5,987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생대비 연간 이용 책 수(학생 1인당 도서관 이용 책 수)로 환산하면, 초등학교 9.9권, 중학교 6.4권, 고등학교 5.8권으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학교도서관(실) 당 평균 예산은 초등학교 4,779천원, 중학교 4,731천원, 고등학교 4,918천원으로 전체 평균 4,89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학교도서관(실) 일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4 학교도서관 일반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도서실	도서관	도서실	도서관	도서실
도서관수	215	4,564	133	2,519	315	1,938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도서실	도서관	도서실	도서관	도서실
직원수	111	1,313	67	718	211	848
좌석수	13,166	212,405	11,652	133,873	53,846	145,552
장서수	1,232,311	27,406,437	864,274	12,294,974	2,888,318	10,428,928
연간 이용자	764,491	24,120,620	278,809	9,811,380	2,029,030	7,184,400
연간 이용액	1,212,675	39,117,257	355,158	11,924,984	1,871,796	8,354,188
예산액	634,600	23,394,115	344,752	12,511,866	1,387,050	9,522,025

※ 출처 : 2004 교육통계연감. 3-6 전국 도서관(실) 현황 중에서 발췌 함.

※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std.chedi.re.kr/jcgi-bin/publ/publ\\_yrbk\\_fmne.htm](http://std.chedi.re.kr/jcgi-bin/publ/publ_yrbk_fmne.htm)

※ 예산액은 도서구입비에 한 함.

※ 예산액 단위는 천원 임.

## 2) 운영 인력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관리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사서교사 또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동반자 내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인력에 대한 정책은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배치보다는 대출반납 정도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어서 2004

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 (1) 인력 현황

사서교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7% 불과하다. 각 시·도별 사서교사 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 배치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004년	120	12	12	3	1	1	4	27	7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3	6	0	17	45	3	1	262	

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가 공동 발행한 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사서교사 및 사서 등 전담인력이 있어서 책임감 있게 도서관 문을 열 수 있는 곳은, ①사서교사(232개교) ②사서(48개교) ③기능직 사서(39개교) ④비정규사서(1,051개교)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1,400개 학교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8,000여개의 학교는 ㉠사서자격 소지 일반교사(246개교)나 ㉡일반교사(7,419개교)들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담당인력(2003)

지역	학교수	① 사서교사	㉠ 사서자격 일반교사	㉡ 일반교사	② 사서	③ 기능직 사서	④ 비정규 사서	기 타	합 계
서울	1,226	120	38	898	10	8	61	32	1,167
부산	595	12	9	409	3	7	40	29	509
대구	397	12	15	330	0	3	14	3	377
인천	389	2	9	365	2	2	27	9	416
광주	258	1	6	164	3	0	258	5	437
대전	248	1	13	194	2	2	26	10	248
울산	183	4	2	91	1	0	1	4	103
경기	1,711	14	30	1,023	5	5	455	31	1,563

지 역	학교수	① 사서교사	㉠ 사서자격 일반교사	㉡ 일반교사	② 사서	③ 기능직 사서	④ 비정규 사서	기 타	합 계
강 원	642	4	13	276	1	0	4	40	338
충 북	454	2	15	409	1	0	3	271	701
충 남	734	5	31	615	7	5	54	71	788
전 북	751	0	18	550	0	2	13	26	609
전 남	869	17	4	689	5	2	27	2	746
경 북	978	34	12	715	8	3	1	13	786
경 남	891	3	29	609	0	0	10	5	656
제 주	177	1	2	82	0	0	57	1	143
합 계	10,503	232	246	7,419	48	39	1,051	552	9,587

(2) 인력 정책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04년 2월 노동부의 직장체험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직 채용 공고의 내용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을 ‘각급 학교의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전담 사서직을 노동부 직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신청 근로자로 활용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인력의 자격조건에서는 전공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전연수 내용에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실무와 도서관관리프로그램 운영(DLS) 및 독서지도’ 등을 포함시킨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사서교사 확보를 등한시하고, 공무원 총정원제를 내세워 사서교사 이외에 다양한 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인력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써, 학교도서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http://www.ksla.net>).

첫째, 이번 사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지역교육청을 관리 장학할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서교사의 정체성을 심하게 흔들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사서채용 공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며, 차체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분명한 정책과 입장을 천명하도록 촉구한다.

둘째,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을 무슨 도서대여점 수준으로 폄하하고, 그 교육적 역할을 몇 시간 연수로도 수행할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업무 정도로 인식하도록 방치한 교육 당국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학교도서관 운영편람과 그에 앞서 천명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셋째, 필요한 인력 채용이라 할지라도 당국이 천명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본질을 호도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사서교사의 위상을 훼손하는 문구로 공고를 낼 필요는 없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비전 공유와 정책 협의가 전무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 (3) 신규사서교사 배치

2004년 3월 1일자로 전국에 30명의 신규사서교사가 임용 배치되었다. 시·도별로는 인천 1, 경기 13, 강원 3, 충북 1, 충남 1, 경북 11명 등이다.

## (4) 4. 23. 1급 사서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수요 조사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서교사 자격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별로 1급 사서교사 자격연수 수요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사서교사로 임용된 지 3년 이상 된 자 중 연수 희망 포기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2005년에 실시할 자격연수의 기초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 3)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했던 2004년에는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정책 표류에 대한 공방이 거센 한 해였다.

## (1) 정책 표류의 내용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년 간 600억원 씩 총 3,00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도서관을 개선한다는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 방안’이 시행 1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300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문 등 언론에서는 새로 취임한 장관이 추진한 EBS 수능 강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식감된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주요 신문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이번엔 EBS 불뚱’(한국일보. 2004년 4월 3일자), ‘EBS에 밀린 학교도서관’(동아일보 2004. 04. 06일자), ‘도서관 활성화 예산 삭감…거꾸로 가는 공교육’(매일신문 2004. 04. 07일자), ‘EBS 수능 강의에 예산 빼앗겨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찬밥’(세계일보 2004. 5. 18) 등 이다.

## (2) 문제점

이 사건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야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슬쩍 떠넘김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과, 공교육 활성화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경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과 향후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 (3) 5. 2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입장 표명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보화지원과를 통해서 5월 28일 특별교부금 100억원 삭감에 따른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 방안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도서관계의 우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05. 20. www.moe.go.kr 자료실 → 학교도서관 → 35번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

…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시행 첫해로서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에 교육부지원금(특별교부금) 300억원과 지방비 300억원 총 60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1,259개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였고, 학생 1인당 장서수 5.5권에서 6.5권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방안 제시, 장학연수 실시, 민관 협력 운동의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개최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2004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사업에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기투자 소요예산에서 특별교부금 3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04년 특별교부금 교육정책 수요사업의 신규사업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대비 감액되어 200억원으로 책정되었는 바, 이는 예산 배분상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 단위학교와 함께 노력하여 현재 2004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예산은 12개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을 보전하여 570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교육청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어 2004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원래 목표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로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신설 및 리모델링 사업,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도서관 관리인력 확보 및 연수 등을 추진하고, 또한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함은 물론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활동 지원,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제도 : 학교도서관진흥법(안) 논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예전에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추진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전격 발의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자격 문제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어난 한해였다.

##### (1) 논란의 배경

2004년 7월 14일 발의된 학교도서관 진흥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 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장학체계 확립'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써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의 인력배치 문제 특히 '학교사서' 배치에 대해서 사서교사 및 예비사서교사 그리고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인력 배치 조항을 수정 제안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반면,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의 일부 비정규직 사서들 특히, 여성노조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 사서들이 진흥법(안)의 인력 배치 조항을 찬성하고 나섬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불거졌다. 논란이 된 법안의 인력배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 2 조(정의)

6. "학교사서"라 함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담 부서의 구성 및 교육전문직원의 배치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논란의 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서교사 배치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직 사서 배치가 사서직원을 도서관에 둘 수 있도록 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사서 배치를 적극 찬성하였으며, 비정규직 사서들은 그 동안 이룩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자격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등은 법해석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교원양성 및 자격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교육적 배경을 갖춘 사서교사나 실기교사(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과연 사서자격증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서직 전체의 위상 저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일용직 사서 구제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 (3) 논란의 과정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안 발의 전 7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학교도서관 정책 토론회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이후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7월 29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비정규직 일부 대표들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신장을 위한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배치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부산디지털도서관연구회, 도서관협회학교도서관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대리인 출석)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모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12조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의 업무 보조를 위해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한해 실기교사(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9월 2일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의 주선으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지역 비정규직 사서단체 임원 간 대화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이 국제적으로 2인 체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 사서교사 1인만으로 학교도서관 관리와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서교사 우선 배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1인과 사서 1인을 두어야 한다.”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는 총정원제로 묶여 충원이 어려운 사서교사 보다는 사서를 먼저 충원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직 사서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학교도서관은 그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교육적 배경과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실기교사(사서)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에 이른다.

### (4) 논란의 잠정적 수습

결국 이 문제는 2004년 11월 한국문헌정보교수협의회 및 관련 학회장 명의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명서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서교사의 의무 배치를 강조하고,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추가로 실기교사(사서)와 사서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사서들의 자격을 사서교사나 사서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성명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장래를 담보하는 초석입니다.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국가의 탄탄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의 기초학력과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중대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환경으로서의 학교도서관 위상정립과 역할제고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의 중추적 지원기관인 학교도서관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과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으며, 아직도 그 존재이유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년전부터 언론매체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학교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학교도서관의 변화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문인력의 배치’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주로 ‘시설과 환경정비’에만 치중하고 운영주체인 ‘사서교사의 배치’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연유로 사서교사 배치계획이 불분명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서가 대거 배치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학교도서관을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자 일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4일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

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쟁점 차원을 넘어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학교도서관 인적 자원 배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감정 대립은 서로 간에 상처만 줄 뿐, 도서관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문헌정보학계는 교육적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으나,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사회적으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 강조됨으로써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시행할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범사회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계의 갈등과 분열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다면 학교도서관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또 다시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및 관련 학회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도서관 이용지도 등의 교육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칭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는 추가로 실기교사(사서) 또는 사서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다만 비정규직 사서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학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또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에게는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문헌정보학과 또는 사서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입학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4년 11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서지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회명: 가나다순)

## 5) 장학 체계

학교도서관 운영을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교과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을 통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 발전에 필수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장학체계가 아닌 행정 체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부터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사서 사무관으로 하여금 대학 및 초·중등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서 2인이 학교 도서관(대학교도서관 포함) 정보화업무와 초·중등학교 도서관 활성화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정책국 산하의 초·중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의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거나, 공공도서관의 사서 1명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도서관과 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도서관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각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도

서관에 대한 장학과 중학교 도서관에 대한 장학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과와는 업무적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 신설

2001. 1. 1부터 한시적 기구로 운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팀이 2004. 1. 1일자로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로 상설화 되었다.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설치된 공공도서관은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 등이며, 학교도서관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수서·정리 업무 지원
- 도서목록 DB구축
- 선정도서목록 작성, 배포
- 담당교사, 도서부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
- 진급처리 지원
- 장서정검 지원
- 예산 배정학교 배치도 및 비품 목록 작성 지원

학교도서관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에 치중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의 역할을 단순한 시설·자료관리자로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관내 학교 급별 담당교사 및 사서교사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지원, 협동 운영 체제 구축 지원, 자원기반학습지원을 위한 자료조직 지원 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으로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업무 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0년부터 중등교육

과 내의 교육과정·통일교육담당장학관실에서 독서교육 담당 장학사와 사서 1인이 맡아 오던 학교도서관 업무를, 2004년 9월 1일자로 중등교육과 학사담당사무관이 맡도록 하였다. 학사담당사무관은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구축, 학교도서관 운영관련 시범학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조치는 학교도서관을 장학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행정의 대상으로 여긴 것으로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 6) 학교도서관 정보화

2004년부터는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DLS(Digital Library System)가 본격적으로 확산 보급되면서 학교도서관 정보화가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DLS는 단순히 자료의 통합목록 구축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기능, 중앙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시·도교육청 단위의 e-book 콘텐츠 탑재에 의한 공동활동 등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통합목록의 질 관리, 대출정보 등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대출·반납시간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의 속도 저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04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DLS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9,649개교의 57%에 해당하는 5,504개교에서 DLS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DLS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변우열 등,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및 DLS 운영현황과 효과분석 연구, 연구보고 KR 2004-10)를 발행하였다.

시·도교육청별 DLS 구축 현황

구축년도	기관 시·도 교육청	DLS 운영기관	DLS 유형	
			I	II
2001 (1)	부산	교육연구정보원	○	
2002 (1)	충북	교육과학연구원		○
2003 (9)	대구	교육정보원	○	
	대전	시교육청 교육정보원	○	
	경기	도립중앙도서관	○	
	강원	교육과학연구원		○
	전북	교육정보과학원		○
	전남	교육과학연구원		○
	경북	경북교육연구원	○	
	경남	교육과학연구원		○
	제주	(도교육청)	○	
2004 (4)	서울	서울교수학습지원센터		○
	인천	교육과학연구원	○	
	울산	교육과학연구원		○
	충남	교육과학연구원	○	

※ 2001~2004년까지 총 15개 시·도에 DLS 구축 완료  
 ※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실 교육정보서비스팀

이 보고서에 따르면, DLS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학교의 도서관 담당자(사서교사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DLS의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질문에 답한 308명 중 기존의 자료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목록업무 처리시간을 단축시켜주었다는 응답(224명)이 72.8%,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이용률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167명)이 54.2%로 나타났다.

### DLS 등록학교 수

(2004년 12월까지 누적)(단위 : 개교)

구 분	DLS 등록학교 수				
	초	중	고	기 타	계
서울	216	115	100	12	443
부산	251	151	115	13	530
대구	133	65	45	11	254
인천	114	45	54	7	220
대전	60	41	36	4	141
울산	47	20	24	1	92



구 분	DLS 등록학교 수				
	초	중	고	기 타	계
경 기	621	282	200	3	1,106
강 원	151	56	62	3	272
충 북	149	71	42	4	266
충 남	181	79	64	3	327
전 북	146	104	78	2	330
전 남	157	105	73	2	337
경 북	322	151	122	18	613
경 남	239	142	105	5	491
제 주	34	23	21	4	82
계	2,821	1,450	1,141	92	5,504

※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실 교육정보서비스팀

## 7) 연 수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시청각 기자재를 조직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지도 정보활용교육 등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 어느 교과교사보다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2004년 한 해 동안 학교도서관 경영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수는 주로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목할 만한 연수는 학교도서관 실무 경영 인력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이다. 이 밖에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신학년도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가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1) 2003~2004년 신규발령 사서교사 연수 (2. 24)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전교조 산하 전국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이 공동으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임용고시를 통해 임용된 사서교사들과 사립학교에 정규 임용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명여고 도서관에서 신입

사서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주제는 “전환기의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서교사의 다양한 직무 영역과 실무 : 장서관리부터 미디어, 정보활용교육까지, 공립 초·중등운영사례, 사립 초·중등 운영사례, 행복한 사서교사 생활을 위하여 등이었다.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신규 사서교사 54명,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6명 등 총 60명이 참석하였다.

### (2)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3. 31)

전교조 서울지부 참실위원회 학교도서관국이 주관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가 서울 어린이도서관에서 열렸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이 뛰기에, 초등학교도서관 운영하기, 중등학교도서관 운영하기 등이었다. 현장 사서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 (3) 전교조 서울지부,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 활동가 연수 개최(4.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는 사직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이나 빌려주는 도서대여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문화가 꿈틀대는 공간임으로 학부모들이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라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 (4)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해외 연수 실시(5. 29~6. 8)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 별로 1명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지원과정을 단장으로 총 21명이 참가하였으며, 뉴질랜드와 호주 학교도서관을 견학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학교도서관에의 적용 방안 등

을 연구하였다. 이 연수에는 서울, 대구, 울산, 경북 지역에서 4명의 사서교사가 참가하였다.

- (5)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담당자 워크숍 및 제1회 전국사서교사 세미나 개최(6. 22~23)

6월 22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담당자 워크숍이 충남 도고에 있는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해당 학교 학교장, 행정실장, 사서교사 및 담당교사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어서 2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전국사서교사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100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여, 사서교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협의, 사서교사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건의문 채택, 사서교사의 역할 증진에 관한 초·중·고별 토론회, 학교도서관 정보화 및 발전 방안 대한 강의 및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가 공동 제작한 『사서교사를 위한 학교도서관 업무 편람』이 배부되었다.

- (6) 경북 중등 도서부원 수련회 개최(7. 23~24)

경북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에서는 “경북 도서부원 정보 공유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 (7) 경북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사서교사 직무 연수 실시(7. 28~29)

경북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2일간(16시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도내 초·중등 사서교사 53명을 대상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직무연수를 가졌다. 주요 연수내용은 독서지도 방법론, 학교도서관의 역할, 도서목록의 이해 및 실제,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등이었다.

- (8)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연구회 사서교사 직무 연수 실시(7. 28~30)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에서는 서울 지역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2004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직무연수를 영신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열었다. 연수 주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동, 학교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화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연구, 초등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중학교도서관의 협력 수업, DLS기반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등 이었다.

- (9)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사과정 직무연수 실시(8. 2~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도서관 정보화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사서교사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참가대상은 초·중등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및 사서교사 40명으로 5일간(30시간) 진행되었고, 연수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교도서관 장서의 수집 및 관리, 학교도서관 자료정리, 실제 디지털자료실 구축 및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등이었다.

## 8) 기 타

2004년에 실시한 학교도서관 관련 대회 및 토론회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 정책 토론회 개최(7. 7)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월 7일(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사서교사, 사서, 학부모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주제는,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현황과 과제 등 이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포함된 학교사서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

#### (2)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고(6. 26)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고(제2004-54호)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구성 운영 및 활용에 학부모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학부모 사서 도우미 참여 운동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 도서기증 등 학교도서관 지원 운동 프로그램
  -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부모 및 사회 각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 기타 학교도서관 구성·활용 및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 ※ 경상비 및 연구목적 사업은 제외

#### (3) 유기홍 의원·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 정책 자료집> 발간(10. 21)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가 공동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정책자료집 『학교에서 책 읽는 아이들, 토론하는 아이들 : 전국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명

시하고 역할 수행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왜 지금 학교도서관인가 / II. 독서와 도서관 왜곡의 역사 / III.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역사 / IV. 2004 한국 학교도서관의 현실 분석 / ○ 부록 -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원안

#### (4) 교육인적자원부 전국학교도서관대회 개최 (12. 3)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전국학교도서관 대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총리, 국회교육위원장, 한국도서관협회장 및 학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업 유공자 표창 등이 있었다.

## 9) 종합 정리

2004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와 쟁점이 노정된 한해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인력배치 문제, 일부 교육청의 사서(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 학교도서관을 장학체계가 아닌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교육 당국의 정책 등은 여전히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책방이나 독서실과 동일시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및 도서관계 구성원들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사람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의식 수준이 2004년 한국의 학교도서관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한해였다.

4

## 전문도서관 현황

### 1) 시설 및 자료

「2004년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전국의 전문 특수도서관은 총 548개관이다. 전문 특수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12,209,266권이다. 이 중 장서 규모가 가장 큰 국회도서관은 1,928,000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이외에 100,000권 이상 장서를 가진 전문도서관은 법원도서관 등 8개관이다. 1개 관당 평균 장서수는 약 22,300권이지만 100,000권 이상 장서를 가진 9개 관을 제외하면 1개 관당 평균 장서수는 약 16,130권이다. 이밖에도 전문 특수도서관의 특성상 비도서자료가 총 11,394,259건으로서 타 관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전문 특수도서관의 주전산기 보유 현황은 2003년도에 103개 기관이 주전산기를 보유하고 2004년도에는 12개 관이 신규 추가 도입함으로써 총 115개이다.

전문 특수도서관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수가 383개 관이며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 특수도서관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도별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비도서자료
서울	272	1,228	7,357,589	10,956,882
부산	16	30	175,475	1,494
대구	16	27	266,122	41,563
인천	12	19	139,882	7,445
광주	12	61	157,853	31,720

구분 시도별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비도서자료
대전	50	293	1,118,583	61,029
울산	7	17	46,583	29,082
경기	91	379	1,951,995	171,681
강원	8	55	97,217	3,582
충북	8	58	81,584	1,175
충남	10	66	179,989	50,730
전북	9	7	54,077	11,827
전남	3	4	64,701	398
경북	11	9	129,502	7,849
경남	19	37	345,279	13,802
제주	4	3	42,835	4,000
계	548	2,293	12,209,266	11,394,259

### 2) 인력 및 재정

전문 특수도서관의 총예산은 약 760억원으로서 1개 관당 평균 약 1억4천만원에 해당된다. 한편 자료수집 예산 총액은 약 300억원이며, 이 중 국회도서관 188억원,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각각 25억원, 법원도서관 13억원의 순이다. 1개 관당 평균 자료 수집 예산은 약 55,000,000원이지만 상기 4개 기관의 자료 수집 예산을 제외하면 1개 관당 평균 자료 수집 예산은 약 10,000,000원에 불과하다.

전문 특수도서관의 직원 수는 총 2,293명이다. 1개 관당 평균 직원 수는 4명이지만 이 중에서 국회도서관 265명,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제외하면 1개 관당 평균 직원 수는 약 2명에 불과하다.

## 5

## 특수도서관 현황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조 8항에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장애인, 군사시설에서 근무중인 자(이하 “장병등”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항에는 「“병영도서관”이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부대의 병영내 장병 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도서관이란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통상의 인쇄물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수도서관의 정의가 2004년을 기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신 도서관법개정(안)에 특수도서관 관종이 없어지고 공공도서관의 하위분류로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특수도서관을 공공적 시각에서 공공도서관과 연계시켜야 발전이 촉진된다는 측면과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도서관이 사회와 도서관계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공도서관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 1) 점자도서관

문화관광부는 2003년 연말부터 2004년 새

해까지 전국 점자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점자도서관을 독립형도서관과 복지관형도서관 등으로 간략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었다. 또 경상비는 이전처럼 지원하되 자본보조는 특화사업 지원으로 변경하여 별도로 각 도서관의 사업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적절성과 사업 효과에 따라 지원하였다. 이런 문화관광부의 정책은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점자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자도서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각 점자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많이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욱이 지방분권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점자도서관의 존재위기가 논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점자도서관 관장들은 「시각장애인도서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비공식적 협회를 결성, 문화관광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점자도서관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적극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발표된 신 도서관법(안)에는 국립장애인서비스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안이 들어있어 이에 대하여 점자도서관계의 의견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점자도서관장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또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점자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고, 보다 적절한 정책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정부는 다시 한번 점자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료에 있어서는 아직도 2003년에 비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전통적인 점자도서와 카세트테이프 녹음도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전히 중복 제작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자료로서 질적 수준이 낮았다. 서비스는 우편대출을 기본으로 택배대출과 대면낭독을 수행하며 영화보기, 독서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지원의 축소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 제작이나 서비스가 일부 축소되고 위축되는 한 해였다.

## 2) 병영도서관

2004년은 병영도서관이 크게 도약하는 해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병영도서관이 개관하였고 소장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병영 내 독서 열풍을 일으킨 한 해이다. 그 근거는 2003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병영도서관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여 육해공군 각급 부대의 병영도서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병영시설 현대화 개선사업과 각급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대대급 1,740개의 병영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에서도 경찰 울릉경비대 울릉 독도도서관, 1군단 101통신부대 광개토태왕도서관, 1사단 12연대 병영도서관 등 3개의 병영도서관을 개관하였고, 12월에는 국회에서 “병영도서관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의 관심을 조명시키고, 군내부인식의 전환과 전문 사서병의 도입 등 병영독서운동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이 외에 또 하나의 병영도서관 설립 추진 운동의 민간단체인 은혜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는 2004년 한 해 동안 16개 병영도서관의 개관 추진과 함께 많은 양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4월에는 육군승리부대 15개 대대에 병

영도서관을 개관하였고, 비디오테이프 4,000여권을 추가로 지원해 부대 내 비디오숍을 설치하게 하였다. 6월에는 공군 11전투비행단 광성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육군백골부대에 6,000여권의 도서와 공군 11전투비행단에 1,500여권을 기증하였다. 또 육군수방사 55경비단에 2,000여권, 육군 2탄약창에 2,000여권, 해병대 1개사단 11포병대대에 2,300여권, 육군불무리부대에 2만여권의 도서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 단체는 2001년부터 꾸준히 병영도서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약 4년동안 35만여권의 장서를 기증함으로써 병영도서관의 건립과 독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병영 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최신베스트셀러 외에 자기 개발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도서 등도 비치하여 장병들의 자기발전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공부 및 자습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시설도 열람실과 어학실을 갖추고 냉온풍기를 구비하는 등 현대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였고, 주5일근무제로 휴무일 증가에 따라 컴퓨터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열람체계를 구축,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선·후임 장병간의 책을 통한 정보공유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한 문화복합공간이 되었다. 특히 광성도서관이 설치된 부대는 테마나무실(독서, 자격증내무실)을 설치하여 독서와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고, 전방지역과 격오지 등에는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하며, 군가족에게도 개방하여 모든 장병의 도서관 이용이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군가족의 문화공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한 병영도서관은 장병들의 독서 붐 조성을 위한 독서 낱말 퍼즐 퀴즈, 독서감상문 공모, 독서달인 퀴즈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기도 하고, 병영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이 협력관계를 통해 부족한 장서문제를 해결하며 장병들의 독서를 활성화시키는 등 크게 발전하는 해였다.

### 3) 교도소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아직도 폐쇄적이고, 도서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편이지만 도서관의 중요성은 점차 인식되어 가는 듯 하다. 통영구치소와 대구구치소 등이 시각장애 수형자를 위해서 점자도서를 구입 비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수형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관련한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수형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해 받고 있으며 그 자료 건수는 2003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형자에게 제공한 자료 건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16	13	26	23	21	15	21	25	18	23	22	28	251

### 4) 병원도서관

병원도서관은 몇 대형병원만이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되고 있을 뿐 대부분이 종교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전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나 통계도 없다. 신간도서는 도서관에 따라 월 30여종씩 구입하는 도서관과 주로 기증에 의존하는 도서관 등 차이가 있다. 환자서비스를 하는 병원도서관은 이용자의 특성상 도서의 분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 특별한 사례로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민책읽기운동”의 일환으로 독서텔레비의

정거장으로 부산대병원에 “쌈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층 로비에 약 10여평의 규모로 교양, 건강서적 등 1,000여종의 책과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 2대를 설치, 환자와 내원객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이 도서관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개관한 타 도서관과 보유한 도서를 텔레이식으로 맞교환해가며 독서문화를 널리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

### 5) 과제와 전망

2004년 한해는 특수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도약과 위기를 맞이한 변화가 많은 해였다. 법령 제정에 따라 병영도서관이 크게 발전하는가 하면 점자도서관은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인하여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아직도 교도소 도서관과 병영도서관은 거의 종교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서관법 개정 목표의 하나가 지식정보 소의계층을 지양하는 것이니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는 하나 특수도서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육성책이 없이는 결만 번지르르한 법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특수도서관의 유형을 어떤 범주에 포함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수도서관의 특성상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이 법제화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도서관계나 학계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여 특수도서관이 크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